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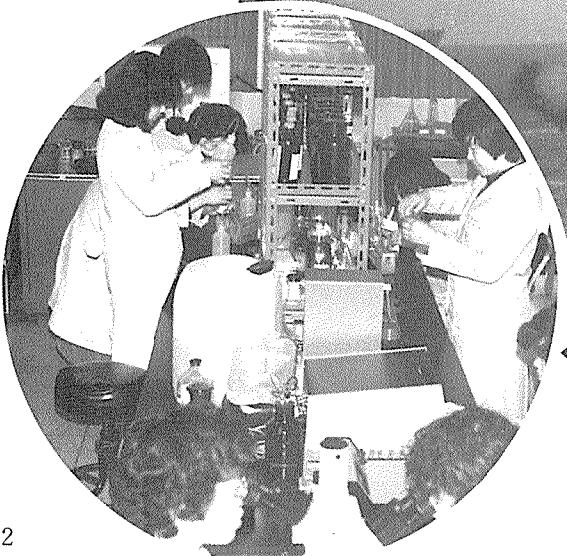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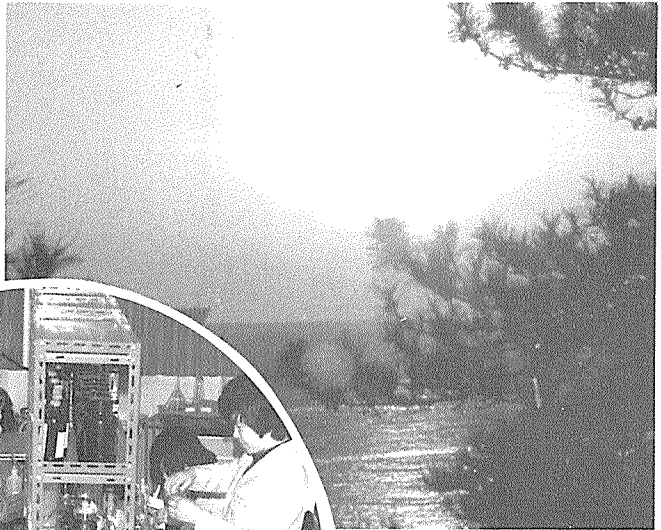
## “근로자의 건강이 곧 국가

한국 수출산업공단 서울지구 의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한국 수출산업공단 서울지구 의료보험 조합원 간염검사와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조합 산하 301개 사업장 근로자 7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검사 사업은 사업범위가 큰 만큼 능률성과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다.

▶ 첫새벽의 쌀쌀함과 상큼함을 한꺼번에 호흡하면서 간헐서울지부는 또 하루를 시작한다.



◀ 한 조가 7~8명으로 구성된 검사팀은 그날 그날 그들이 들려야 할 사업장을 점검하고 시간을 안배한다.

# 경제 발전이 초석이죠”

## 조합원 간염검사 현장을 찾아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정착을 기대하면서, 아침 7시부터 출근해 저녁 늦게까지 검사업무에 눈코뜰 새 없는 서울지부 검사팀과 하루를 같이 하면서 이번 검사사업의 의의를 알아보고 진행 상황을 돌아보고 수검자들의 반응을 들어봤다.

### 이른 아침, 검사현장을 향하면서…

미처 날이 밝기도 전 분주한 발걸음소리들이 뒤섞여 들려온다.

구로지역 수출공단 의보조합 근로자 간염검사를 시작한지도 벌써 한달.

첫새벽의 쌀쌀함과 상큼함을 한꺼번에 호흡하면서 건협 서울지부는 또 하루를 시작한다.

봄이 문턱에 다가왔다지만, 아직도 새벽의 공기는 차갑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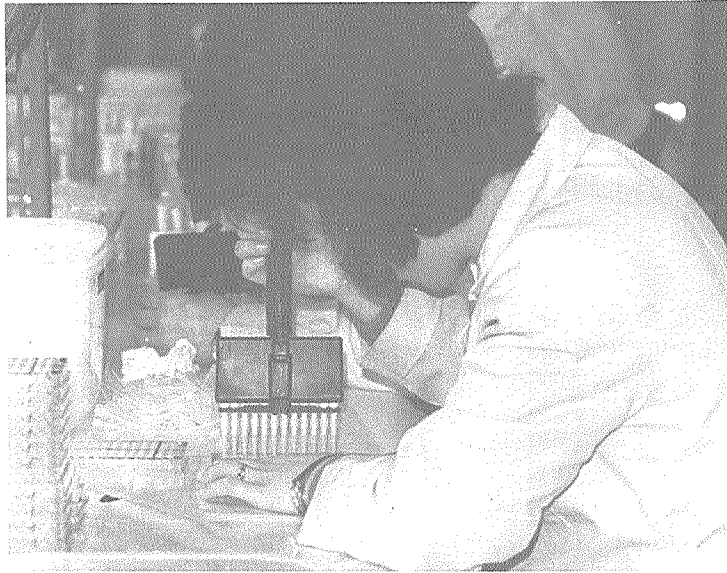
미리 준비된 검사자재들을 검진 버스와 앰블런스에 실으면서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생각한다.

하루에도 몇천명의 팔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이들, 누구를 만났던가 골똥히 생각하면 별로 떠오르는 얼굴은 없지만 이들은 알고 있다.

그것이 살아가는 일이며, 그 삶의 목적을 향해 한걸음한걸음 나아가는 것임을 …….

###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 노력한다

아침 8시. 검진버스에 몸을 싣고 협회를 떠나 수출공단을 향한다. 한조가 7-8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그날 들려야 할 사업장을 점검하고 시간을 안내한다.



근로자 건강 ▶  
검사를 위한  
비용축적, 검  
사가능기관의  
정착, 그리고  
검사의 필요성  
이 이번 사업을  
가능케했다.

『정확한 시간에 시작해서 충분한 시간내에 정확한 검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하루에 상당히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한곳에서 조금만 오차가 나도 저희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근로자에게도 예로사항이 발생하게 될테니까요.』 김선웅 임상병리사의 말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실감할 수 있었고 그들의 노력에 새삼 겸허해진다.

###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간염검사

이윽고 한 사업장에 도착했다. 검사장비를 내려 지정된 장소에 정리해둔다.

이른 아침, 출근해 벌써 조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근로자가 눈에 띈다.

의보 담당자와 사업장 책임자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인지 검사팀을 반갑게 맞이한다.

『어서 오십시오.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로 악수를 나눈다. 오랜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의보 담당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란 생각을 몇년전까지만 해도 못했었죠. 그저 아파서 병원갈 때 병원비 절감 혜택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할정도라면 이제 모든 면에서 많이 발전한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예방을 위한 검사 비용이 축적되었다는 것과 이렇게 검사를 해낼 수 있는 기관이 생겼다는 두가지 여건이 성숙했고, 거기에 필요성이 더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는 계속 말을 잇는다.

『한 사업장 인원으로 따지면 몇십명에서 몇백명, 몇천명으로 다양하지만, 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한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번거롭고 혼잡할겁니다.

몇명씩 조를 짜서 외출하는 것도 전체 조업에 많은 영향을 주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와서 검사를 해주는 것이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덕분에 작업시간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죠.』

이번 한국수출산업공단 의료보험조합 근로자에 대한 간염검사는 공단의보가 피보험자의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조합 산하 301개 사업장에서 총 7만 5천 여명을 대상으로 건협 서울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의보와 건협은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동시에 피보험자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지를 협의한 끝에 각 사업장으로 건협의 검진버스가 나가 검사를 진행하고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현장을 각각 찾아다니면서 실시키로 했고, 현재까지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 단체생활에서는 간염을 특히 조심

9시가 가까워지자 검사대상자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검사를 받기 위해 들어왔다.

접수원에게 접수를 하고 검사신청서를 들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더러는 신기한 얼굴로, 또 더러는 피를 뽑아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서린 얼굴로 앞서사람의 채혈 광경을 바라보고 서있는 그들. 그러나 그들은



◀ 이번 검사를 계기로 간염과 건강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검사대상 근로자들

무언가 즐거워하며 앞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어디가 아파도 병원에 갈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아요. 특히 간염검사는 아주 간단하고, 또 누구나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실천하게 되질 않더군요.』

병원에 가는 일이 드무니까, 어떤 때는 의료보험료 내는 것도 아까울 때가 있었는데, 이젠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말예요.』 검사를 받은 장모양(21세)의 얘기다.

또 한 근로자는 『이번 기회에 간염에 대해 몰랐던 것을 새롭게 인식했어요. 재수없으면 걸리는 병, 그러다 저절로 낫는 병 정도로 생각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간기능을 손상시킬 만큼 큰 병이란 걸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라며 밝게 웃었다.

『우리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라고 말한 한 근로자는 자신보다 병원에 가거나 검사받을 기회가 더 없는 부모님들 생각이 난다며 고개를 숙인다.

또 한 근로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준 모든 관계인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점차적으로 검사범위를 확대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한다.

## 질병 및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계기

『간염의 경우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단체의 어느 한사람이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모두가 생활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육체노동으로 피로가 겹치게 되면 간염에 쉽게 감염되기도 하고 또 걸려있는 경우는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간염에 걸렸는지의 상태를 알고 있으면 특히 생활에도 조심하게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검사 사업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건협 서울시지부 부속의원장 이중범박사의 얘기다.

그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일상생활에서 공용물건 사용에 주의하고 훌륭한 음식보다는 영양이 골고루 섭취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라면서 검사를 받고 예방접종을 받은 후의 생활수칙을 친절히 일러준다.

이번 검사사업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출공단의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근로자 간염검사나 예방접종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오게 될 검사결과 데이터는 근로자들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의 근로자 건강관리의 방향도 설정되리라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반인 이들의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검사야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범위죠.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면서 이번 검사의 의의와 함께 근로자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한다.

### 정확한 검사를 위해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들...

『이제 간염검사 작업은 거의 마쳤습니다. 결과가 나온 사업장은 벌써 결과 통보를 하고, 그에 따라 접종해야 할 검사대상자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5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보험조합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치는 때까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 저희들이 노력해야죠.』



◀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틀인 이들의 건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업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남서중 건협 서울시지부 사업과장은 앞으로의 다짐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다.

한편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일을 해주는 직원들에게도 뭐라고 고마움을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라는 서울시지부 서기홍 사무국장은 사업이 끝난 후 모두에게 시원한 술 한잔이라도 사줬다면 이런데서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인다.

### 내일을 위한 준비

저녁8시, 몇군데의 사업장을 돌고 난 검진버스가 협회로 돌아온다. 채취한 가검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냉장고에 보관시키고 다음날의 일정을 점검하고 장비 정리를 마친 검사팀.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12시간여의 근무에 피로해진 몸을 끌고 문을 나서는 이들의 걸음은 그러나 가벼워 보인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즐겁다는 그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보람인 것이다.